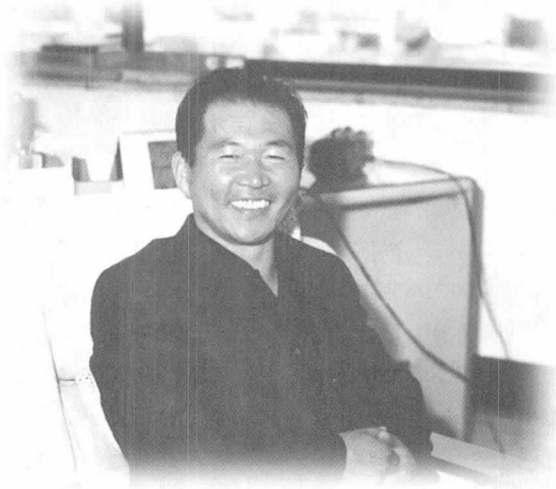


# 자가배합사료 생산하는 “홍주골 자가 배합사료”



▲홍주골 배합사료의 김건태회장, 앞으로는 사료생산이 자가배합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재 : 이 병 석

**농장** 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로 사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돼지 1두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비를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초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양돈농가 대부분의 사료급여 형태는 사료회사를 통해 구입한 배합사료의 급여가 대부분이며 간혹 잔반을 이용한 돼지 사육농장이 있

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잔반을 이용한 돼지사육은 계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중이다.

현재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1두당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돈사시설의 자동화, 인공수정의 도입, 임신진단을 통한 번식성적 개선, 컴퓨터를 이용한 경영분석 등 돼지 1두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

추어 보려고 무단히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이외의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를 급여하는데 드는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부분의 농가가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장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돼지생산비중 전체 생산비의 60~70%나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배합사료에 대한 절감대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환율이 10원 오르게 되

면 사료비가 0.7%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국제환율의 변동폭이 큰 상황하에서는 지금의 배합사료 구입 형태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며, 사료값의 인상 등에 대한 양돈농가의 대처방법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회원중 10명의 회원을 결성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기로 합의하고 1인당 출자금 3백만원씩 총 3,000만원을 출자하여 "홍주골 자가 배합사료"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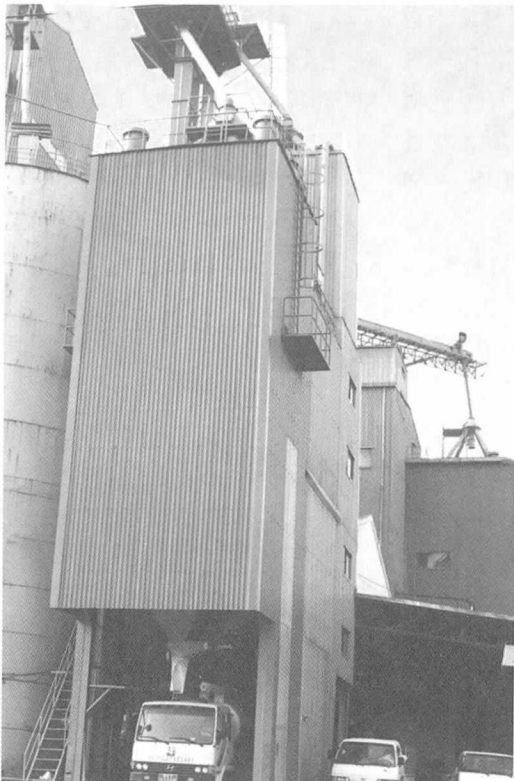
"홍주골 자가 배합사료"(회장 : 김건태)는 출자한지 6개월여 동안 여러가지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반기술 및 사료원료 구입, 배합비율표 확보 등에 대한 준비기간을 가진후 지난 6월 2일부터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홍주골자가 배합사료"의 생산과정을 보면 배합사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프리믹스(PreMix)와 배합비율표는 (주)한국양돈진흥사업회를 통해 미국 무어맨사에서 수입하고, 옥수수와 대두박은 홍성축협에서 구입해서 사료배합을 홍성축협 사료공장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다. 특히 홍성축협은 자가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을 월 2,000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자가배합시설을 해 놓았다.

자가배합사료를 처음 생산한지 2개월 가량은 미국의 무어맨사에서 구입해 온 프리믹스(PreMix)를 그대로 적용하여 생산을 했지만(항생제 등 무첨가) 배합비에 항생제 등이 전혀없는 상태 그대로 생산해 돼지에 급여하다 보니 질병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

### 생산원가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고자 설립한 홍주골자가 배합사료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분회 홍성지부(지부장:김건태)는 전국에서 최초로 양돈생산비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배합사료의 부담을 줄여 전체 생산비의 20%를 낮추는 즉, 생산원가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해('96년) 11월 14일 홍성군내 협회



▲홍성축협 사료공장은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월 2천톤 규모의 자가배합가공라인을 설치하고, 벌크차 2대도 새로 증차했다.

산한지 3개월 후 부터는 홍성군내 양돈농가의 실정에 맞게 약품, 구충제 등을 첨가한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월 현재는 월평균 780여톤의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시작 당시보다 1명이 준 9명의 회원이 이 사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홍주골 배합사료의 회장인 김건태 회장의 경우에는 월 평균 120~130여톤을 구입하여 찢먹이 새끼돼지를 제외한 모든 돼지에 급여하고 있었다.

### 생산농가에 알맞는 우수 품질의 사료생산 추구

실제로 자가배합사료라고는 하지만 사료의 핵심 배합비율표는 미국의 무어맨사에서, 옥수수·대두박 등은 홍성축협에서 구입하고, 사료배합은 홍성축협사료공장을 통해 임가공하는 형태이지만 우선 생산자가 배합사료 생산의 주체가 되어 임가공을 위탁함으로써 생산자가 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료를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값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농가 주체농장의 형편에 알맞는 우수품질의 사료생산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생산비를 20% 낮출 수 있는데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현재의 영세적인 규모에서 자가배합사료공장을 새로

〈표〉홍주골 자가 배합사료 각 품목별 배합비율표 예

	찢먹이	육성돈	비육돈	임신돈	모유돈
옥수수 (Grain)	677.0kg 67.70%	750.5kg 75.05%	828.5kg 82.85%	818.5kg 81.85%	751.5kg 75.15%
대두박 (44% Soybean meal)	288.0kg 28.80%	222.0kg 22.20%	144.0kg 14.40%	133.0kg 13.30%	200.0kg 20.00%
QR1402	35.0kg 3.50%	27.5kg 2.75%	27.5kg 2.75%	35.0kg 3.50%	35.0kg 3.50%
QR1404				13.5kg 1.35%	13.5kg 1.35%
합계 TOTAL	1,000kg 100.00%	1,000kg 100.00%	1,000kg 100.00%	1,000kg 100.00%	1,000kg 100.00%

◎〈표〉는 (주)홍주골 자가 배합사료에서 홍성축협에 생산하고자 하는 양돈사료의 배합비율표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배합비율표는 배합되는 곡물의 종류와 곡물수입 원산지 등을 참고해서 미국의 무어맨사를 통해 제공 받는다. QR1402, QR1404는 미국 무어맨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믹스(PreMix)임.

세우는 것은 과도한 투자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홍주골 자가 배합사료”처럼 기존의 사료공장에 임가공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은 기존 물류비의 감소 등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홍주골 자가 배합사료”의 지난 10월의 사료생산량은 767.5톤으로 원료비, 임가공비, 운송비, 약품비 등 사료생산에 드는 비용이 총 2억2백60만원으로 사료 1kg당 263원 정도(회원이 농장에서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로 일반 배합사료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인공수정 보급률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바로 이 인공수정 못지않게 자가배합사료생산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홍주골자가 배합사료 김건태 회장은 “처음에는

미국자가배합사료와 국내 양돈 형태(질병이 많은 등)가 다르기 때문에 약품첨가 문제등의 실수가 있었지만 경험을 통해 잘 해결 되었으며,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사항은 홍성축협사료공장과 함께 보완해 가면서 생산하기 때문에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자가배합사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누구도 접근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회원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김건태 회장은 “양돈회원 전부가 모두 동참하여 생산원가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이익극대화의 경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대만, 일본과 같이 전체 배합사료 생산 중 40~50%가 자가배합사료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養豚**